죽음의 종류

익사(溺死)

불안합니다.괜히 불안합니다. 당신은 알까요? 이 감각을, 내 목을 조여오는 감각을 말이죠. 눈 앞이 깜깜해지는 듯 합니다 .가끔씩은 멍해집니다. 내 눈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세게 감아서야 안정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말이죠,이 세상이 무섭단 말 입니다. 이젠 질립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깊고 따뜻한 물 속에 잠식되어가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차가워도 괜찮으니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나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어주세요. 약지라도 괜찮으니 나에게 당신을 베풀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 점점 뜨거워지는, 나를 녹여버리는 물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나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어릴때부터 물이라면 질색이였습니다. 목욕이랍시고 어머니께서 나를 욕조에 밀어넣고 뜨거운 물을 들이부을때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욕조에 뜨거운 물이 가득차면 물이 내 목까지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절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를 뽑아버릴 기세로 끝어당기고, 내 목을 거세게 조여대고, 내 손 끝을 갉아먹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치밀했다고요. 그들은 내 성대를 녹여버리고 내 혀를 녹여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산화탄소를 실새 없이 내뿜는것 뿐이였습니다. 내가 어느새 죽어버리면 그제서야 어머니께서 나른 지옥에서 구제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모르셨습니다. 난 이미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이미 지옥이 존재입니다. 영혼없는 물로 이루어진 몸뚱이름 끌고다니며 인간인척 기만할 뿐입니다. 하루는 죽음을 가장하는 늙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푹신한 매트리스위에 누원 두터운 이불을 덮고는. 입에는 고무장치를 문채 숨을 거두고는 차가워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가장하며 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자고로 차가운것이 아닌 뜨거운것입니다. 천천히 몸을 녹여버리는 죽음을 그들은 모욕합니다. 진정한 죽음에 대해 알까요? 당신이라면 알아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겪어가면서야 깨닫습니다 당신조차도 죽음이 무엇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나밖에 모릅니다.

처음엔 살 수가 없었습니다.눈앞이 깜깜해지고 어두운 물속에만 들어가면 나는 마치 시체기
된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나에게 지옥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물입니다 아무도 나름 믿지 않고, 나를 정신이상자로 취급한다하여도 나는 압니다. 진짜 지옥은 뜨겁기만한 물속에서 천천히 잠식당하며 녹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있습니다.누군가는 나에게 신을 믿으라 합니다.

신따위는 존재하지않습니다. 당신이 신을 믿든, 선행을 베풀며 인생을 살았든, 누군가를 구제했든, 당신은 결국 나와 같은 신세가 될겁니다.

천천히 발끝부터 녹아가는 기분을 느껴봐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무시하는 당신처럼, 그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날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내밀어달라 애원하는 나름 보며 우월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나는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고 말고요. 당신이 고통스럽게 녹아가며 뜨거운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 목으로 어찌저찌 소리른 내려 노력하면서도 고작 날숨 몇번을 내뿜을 것이라고 나는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손끝으로, 당신의 뇌 전체가 녹아버릴겁니다. 천천히 녹아버리며. 당신은 고통스럽게 죽어버릴것입니다.피 한방울도 없이 물 .아니,지옥과 하나가 되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 역시나 지금 그러한 신세지요.

사실,처음에 당신에게 애원한 것은그저 연기에 불과했습니다.나는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날만을 기다려왔지요. 천천히 죽어가며그 고통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이 물속보다도 지옥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잠식해 녹아버려 물과 함께한다면, 나는 그제서야 자유로워집니다. 당신도 즐기게 될 것 입니다. 뇌까지 전부 녹아버리면, 당신은더 이상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게 되는거지요. 당신은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자유를 쟁취했으니, 슬퍼하지마세요. 녹아가는 나를 보며 깨우치길 바랍니다. 물이 되는 것은 그리 나쁜것이 아닙니다.

아사(餓死)

혀에 침과 물 의외의 것이 담민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피부는 퍼석퍼석하고, 머리를 손으로 훑어도 머리카락이 무수수 빠진다. 하루에 3~4번씩 어지러워 쓰러지는 것은 기본이며, 실신을 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난로를 아무리 오래 틀이놓아도 으슬으슬한 한기가 가시지를 않는다. 몸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두통은 그저 일상이 되어버렸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조차 나에게는 힘든 20년전의 일이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창 거리가 조용할 때였다. 짐을 들고 기차역에 하나뿐인 험육과 손을 잡고 표를 사러간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작던 나의 혈육은 미간을 일그러트리더니 기침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계속해서 기침 소리를 내던 그는 나름 출깃 쳐다보더니 곧 눈시울을 붉혔다. 햇빛을 반사해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눈물방울이 그의 붉게 상기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꾹 닫은 입도 얼더니,목젖이 보일정도로 크게 앙앙 울기 시작하였다. 그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소리내서 들었고 그 섬뜩한 울음소리는 내 귀를 찔러댔다. 그의 울음소리는 나를 미치게끔 만들었다. 평평한 햇빛 아래에서 아무도 없는 기차역에 그의 울음소리만이 넓디 넓은 공간을 장악하였다.

나는 내 깊은곳에서 어떠한 강렬한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성대에서 비롯된 소리는 어느새 나를 장악하였고, 나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난 발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나아갔고, 곧 이어 열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서 붉은색의 기차가 보였다. 나는 빠른속도로 다가오는 기차와 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기적소리가 가까워져 그의 울음소리가 잠길 때 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등을 떠밀었다.

아직도 기억난다. 나의 눈앞이 시뻘개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그날 장미꽃을 보았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눈앞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에 나의 뇌는 행복감 그 이상의 황홀감이라는 감정을 전달하였다. 눈물샘이 터지고, 함박 웃음이 지어졌다.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 이후로 해마다 장미꽃을 집에 들여놓게 되었다
장미꽃을 볼때마다 그때의 광경이 내 머릿속에 다시 재현되었고, 마치 마약처럼 나는 다시 그때 그 황홀감에 잠식되게 되었다.그 장미꽃을 위해서 나는 모든것을 포기했다. 값비싼 장미꽃을 사기 위해서라도 먹지도 않았고, 입지도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났을까. 나는 결국 현재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다.하지만, 이상하게도 축기직전의 힘겨운 몸을 이끌고 장미꽃을 바라볼때마다 나는 그때의 나로 돌아가게 되었다. 기차의 경적소리, 쏟아지는 햇빛, 꽃망울을 터뜨리는 장미꽃.모든 것이

생생하게 다시끔 나에게 찾아왔다.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 뇌는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그곳으로 던져놓았다. 하지만, 나는 싫지않았다.그 환각과 환청이 거짓된 것을 알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햇빛이 강렬하다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난다.

아름답구나. 아, 너무나 아름다워라.

동사(凍死)

내 뜨거운 눈물은 단단히 뭉쳐 있던 눈을 부스러뜨렸고, 나는 도무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자신이 없었다. 어쩌면 나는 이 새하얀 눈밭에서 사라져버려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기억될지도 몰랐다.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그렇다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다.

온기가 미처 사라지지 않았던 나의 손끝은 어느새 생명의 온도를 잃어가고 있었다. 가로등은 깜빡였고,나 또한 깜빡였다. 밝았다 어두워지는 그 불빛에 나는 마치 생명을 잃어가는 반딧불이가 된 듯 계속해서 깜빡거렸다. 신발이 젖은 것 일까? 아니면 내가 젖은 것 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깜빡이자 나는 그렇게 녹아내렸고, 차갑던 눈이 따뜻한 물이 되도록 만들었다.